

## 「傷寒卒病論集」에 대한 이해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생리학교실

Study about Comprehension of *Shanghanzubinglun*

Jung-soo Kang\*

Department of Korean Physi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In order to understand correctly about *Shanhanlun*, the intension of the author from the preface must be definitely understood. Compared the preface of *Shanghanzubinlun* with the prefaces of other commentaries, figuring out the contents. The preface of *Shanghanlun* describes the time period and the production background of *Shanghanlun*. The publish of *Shanhanlun* is related to outbreak of epidemic, which is related to the war, rebellions, and the secure of trade route from west to east. The episode of Pianque in the preface is the example of the diagnosis in general, and it has connection with the four ways of diagnosis (inspection, listening & smelling, inquiring and palpation) in the last part of the preface. *Shanghanzubinglun* is influenced by Taoism, which is the ideology behind *Huangdineijing* and *Shennongbencaojing*. Zhang Zhongjing had studied deeply about fangshu.

keywords : *Shanghanzubinglun*(傷寒卒病論), *Shanhanlun*(傷寒論), Preface, fangshu(方術), Pianque(扁鵲)

## 서론

『傷寒雜病論』 16권은 東漢末 張機(字 仲景)가 저술하였으며, 漢末 戰禍로 逸失된 것을 太醫令 王叔和가 수집하고 정리하여 『脈經』 7권에 轉載하였고, 北宋의 校正醫書局 교정 후에 『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分卷된<sup>1)</sup> 한의학 最古·最高의 方書이고, 『상한잡병론』의 序文에 해당하는 것이 「傷寒卒病論集」이다<sup>2)</sup>.

『醫方集解·自序』에 “方이란 한 번 定하면 바꾸지 못한다는 名辭다. … 方의 祖宗은 仲景이 시작하였고, 後人들이 類를 따라 넓히고 보충하였으니 다 헤아릴 수 없으나 中경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라고 하였고<sup>3)</sup>, 宋代 校正醫書局에서 의서를 교정함에 있어 “百病이 급하지만 傷寒보다 급한 것은 없다. 지금 먼저 仲景 『상한론』 10권을 교정한다.”<sup>4)</sup>라고 하여 『상한론』의 중요성을 드러냈다. 또한 『脈經·序』<sup>5)</sup>, 宋板 『傷寒論·序』<sup>6)</sup>, 『鍼灸甲乙經·序』<sup>7)</sup>에 『傷寒論』의 의학적 연원 및 중요성, 장중경 일화 등이 실려 있는데 각자 醫書의 序文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仲景 傷寒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자 跋文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상한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原文이 극히 간결하고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原本이 그대로 전해오지 않는 관계로 原文 일부에 대한 眞僞 및 編次 논란, 그리고 수많은 註釋本에 나타난 여러 갈래의 分本한 견해들로 인해 그 전체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sup>8)</sup>, 각 처방마다 용량이 많아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序文은 책이나 문학작품에 대한 저자의 작품소개로, 일반적으로 책의 제작이나 탄생배경, 본문에서 다룰 주요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서문이 비교적 이해하기 쉽게 쓰여지고 있지만 古典의 서문은 어휘나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어렵고 까다롭다.

宋代 이후 『상한론』의 문헌 및 의학적 연구 주제는 『상한론』 속에 내함된 의학적인 방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진단 및 치료 방법을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정도로 『상한론』에 대한 연구는 六經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주된 쟁점이었다<sup>9)</sup>. 또한 임상적, 학술적 연구 성과도 매우 많았으나 서문을 중심으로 저자인 장중경의 입장에서 연구된 바는 없었다.

이에 먼저 「傷寒卒病論集」을 趙開美本人 『新編仲景全書』<sup>10)</sup>를 底本으로 하고, 『傷寒論本義』<sup>11)</sup>, 『傷寒論譯釋』<sup>12)</sup>, 『傷寒論』<sup>13)</sup>, 『注解傷寒論』<sup>14)</sup> 등을 참고하여 번역하고, 장중경이 서문에 언급하고 강조했던 내용들 중, 저술 배경, 扁鵲 고사를 통한 病의 傳變과 四診의 중요성, 方術 등을 중심으로 장중경이 독자(의사)에게 알려주 고자 했던 의도에 의의를 부여하고자 한다.

## 본론

1. 傷寒卒病論集[1]<sup>15)</sup>

論曰[2] 予每覽越人入號之診 觀齊侯之色 未嘗不慨然歎其才秀

\* Corresponding author

Jung-soo Kang, Department of Korean Physi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62 Daehak-ro, Dong-gu, Daejeon, Korea

·E-mail : omdkjs@dju.kr ·Tel : +82-42-280-2617

·Received : 2015/12/03 ·Revised : 2015/12/29 ·Accepted : 2016/01/09

© The Society of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The Physiological Society of Korean Medicine

pISSN 1738-7698 eISSN 2288-2529 http://dx.doi.org/10.15188/kjopp.2016.02.30.1.7

Available online at http://www.hantopic.com/kjopp/KJOPP.htm

也。怪當今居世之士 曾不留神醫藥 精究方術 上以療君親之疾 下以救貧賤之厄 中以保身長全 以養其生 但競逐榮勢 企踵權豪 孜孜汲汲 惟名利是務 崇飾其末 忽棄其本 華其外而悴其內 皮之不存 毛將安附焉 卒然遭邪風之氣 嬰非常之疾 患及禍至 而方震慄 降志屈節 欽望巫祝 告窮歸天 束手受敗 賫百年之壽命 持至貴之重器 委附凡醫 恣其所措 咄嗟嗚呼。

厥身已弊 神明消滅 變為異物 幽潛重泉 徒為啼泣 痛夫 舉世昏迷 莫能覺悟 不惜其命 若是輕生 彼何榮勢之云哉 而進不能愛人 知人 退不能愛身知己 遇災值禍 身居厄地 蒙蒙昧昧 惓若遊魂 哀乎 趨世之士 馳競浮華 不固根本 忘軀殉物 危若冰谷 至於是也。

余宗族素多 向餘二百 建安記<sup>16)</sup>年以來 猶未十稔 其死亡者 三分有二 傷寒十居其七 感往昔之淪喪 傷橫天之莫救 乃勤求古訓 博采衆方 撰用素問 九卷 八十一難 陰陽大論<sup>3)</sup> 胎臚藥錄<sup>4)</sup> 并平脈辨證 為傷寒雜病論合十六卷 雖未能盡愈諸病 庶可以見病知源 若能尋余所集 思過半矣 夫天布五行 以運萬類 人稟五常 以有五臟 經絡腑俞 陰陽會通 玄冥幽微 變化難極 自非才高識妙 豈能探其理致哉 上古有神農 黃帝 岐伯 伯高 雷公 少俞 少師 仲文 中世有長桑 扁鵲 漢有公乘陽慶<sup>5)</sup> 及倉公 下此以往 未之聞也。

觀今之醫 不念思求經旨 以演其所知 各承家技 終始順舊 省疾問病 務在口給 相對斯須 便處湯液 按寸不及尺 握手不及足 人迎跌陽 三部不參 動數發息 不滿五十 短期未知決診 九候曾無髣髴 明

堂闕庭 盡不見察 所謂窺管而已 夫欲視死別生 實為難矣。

孔子云 生而知之者上 學則亞之 多聞博識 知之次也 余宿尚方術 請事斯語。

漢長沙太守 南陽張機著<sup>17)</sup>

## 2. 字句解

[1] 일반적으로 序文은 自序, 原書로 되어 있으나 2傷寒雜病論經 1「傷寒卒病論集」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2傷寒卒病論經과 2傷寒雜病論經은 같은 책으로 알고 있으나, 같은 페이지 안에 하나는 제목으로 「傷寒卒病論集」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2傷寒雜病論經 16권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장중경이 저술했을 때는 2상한졸병론經과 2상한잡병론經은 서로 다른 醫書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병의 범위 및 양상으로 볼 때 상한잡병이 상한졸병보다 더 큰 범위이므로 2상한잡병론經 1상한졸병론經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傷寒卒病論集」은 2傷寒雜病論經의 서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 論曰은 일부 傷寒 註釋書에는 빠져 있고<sup>18)</sup>, 康平本에는 集論曰 三字를 傍註로 사용했는데,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그러나 필자는 論曰 이하 序文의 전체(즉, 予每覽越人入號之診부터 漢長沙太守 南陽張機著까지)가 인용문이라 생각한다.

[3] 2陰陽大論經 林億은 「運氣七篇」이라 했고, 名古屋玄齋는 「陰陽應象大論」이라 하였다<sup>20)</sup>. 2仲景全書·傷寒例經<sup>1)</sup>, 2外臺秘要經<sup>2)</sup>에 「陰陽大論」이 언급되어 있다.

[4] 胎臚는 羅列의 뜻이다. 藥錄은 本草書類로서 藥물을 기록한 서적으로 추측되나 전해지지 않는다<sup>23)</sup>. 丹波元簡은 2胎臚藥錄經은 2神農本草經經과 같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설을 근거하기 어렵고, 後漢代 의가이며 중경의 제자인 衛汎의 散失된 그의 저작을 보면 2小兒顛凶方經 2婦人胎藏經經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경시대에도 이미 '胎'의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4)</sup>. 또한 2金匱要略經에 「婦人妊娠病脈證并治」, 「婦人產後病脈證并治」, 「婦人雜病脈證并治」가 별도로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인과 의서로 추측된다.

[5] 公乘은 官名이고 陽慶은 倉公의 師이며 倉公의 姓名은 淳于意이다<sup>25)</sup>.

## 3. 해석

論에 이르기를 내가 매번 진월인(편자)이 꼭나라 태자를 진단한 것과 제나라 환후의 색을 망진한 일화를 두루 보고 일찍이 그 재주의 빼어남에 단식해 목이 막히지 않음이 없었다. 괴이하게도

- 1) 김현정. 津液과 陽氣의 관점으로 바라본 『傷寒論』의 病機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 2010.
- 2) 字句解 [1] 참조.
- 3) 汪認庵. 醫方集解. 서울, 성보사. p 1, 1983. “方者一定不可易之名. 有是病者必主是藥 非可移流彼此用之爲嘗試者也. 方之祖始于仲景 後人觸類廣而充之 不可計彈. 然皆不能越仲景之範圍.”
- 4) 張仲景. 新編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3. 宋板 『傷寒論序』 “以爲百病之急 無急於傷寒. 今先校定張仲景傷寒論十卷 總二十二篇 證外合三百九十七法 除重複 定有一百一十二方.”
- 5) 王叔和. 王叔和脈經. 대북, 문광도서유한공사. p 2, 1980. “夫醫藥爲用 性命所繫. 和謁至妙 猶或加思. 仲景明審 亦候形證 一毫有疑則考校以求驗.”
- 6) 張仲景. 新編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3. 宋板 『傷寒論序』 “夫傷寒論 蓋祖述大聖人之意 諸家莫其倫擬. 故晉皇甫謐序甲乙鍼經云 伊尹以元聖之才 撰用神農本草 以爲湯液. 漢張仲景論廣湯液爲十數卷 用之多驗. 近世大醫令王叔和撰次仲景遺論甚精 皆可施用. 是仲景本伊尹之法 伊尹本神農之經. 得不謂祖述大聖人之意乎.”
- 7) 皇甫謐 원저, 山東中醫學院 교석. 鍼灸甲乙經校析(上).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p 14, 1979. “仲景論廣伊尹湯液爲十數卷. 用之多驗. 近代大醫令王叔和撰次. 仲景遺論甚精 皆可施用.”
- 8) 남경중의약대학 원저, 문준진 외 전국한의학대학교수 공역. 상한론정해. 서울, 한의문화사. p v, 2013.
- 9) 김현정. 津液과 陽氣의 관점으로 바라본 『傷寒論』의 病機에 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5-6, 2010.
- 10) 張仲景. 新編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3.
- 11) 魏荔彤. 傷寒論本義. 북경, 중의고적출판사. pp 10-11, 1997.
- 12) 南京中醫學院編. 傷寒論譯釋.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7.
- 13) 楊鵬舉, 楊延崑, 曹麗靜 注釋. 傷寒論. 북경, 학원출판사. pp vi-vii, 2007.
- 14) 成無己. 注解傷寒論.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p 6, 2013.
- 15) 『傷寒論譯釋』에는 「張仲景原序」로 되어 있고, 康平本에는 「集論曰 余每覽越人 …」으로 되어 있다.
- 16) 『傷寒論本義』, 『傷寒論譯釋』, 『傷寒論』, 『注解傷寒論』에 「紀」로 되어 있다.

17) 『傷寒論本義』에는 「傷寒卒病論集」 옆에 「仲景先師著」로 되어 있고, 『傷寒論譯釋』, 『傷寒論』, 『注解傷寒論』에는 없다. 康平本에는 「漢長沙太守 南陽張機著」가 序文의 뒤가 아니고 페이지가 바뀌어 「傷寒例」의 시작 부분에 「晉大醫令王叔和撰次」의 앞에 기재되어 있다.

18) 南京中醫學院編. 傷寒論譯釋.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7.

19) 蔡人식. 傷寒論譯註. 서울, 고문사. 1984. p 3.

20) 蔡人식. 傷寒論譯註. 서울, 고문사. 1984. p 3.

21) 張仲景. 新編仲景全書. 서울, 대성문화사. 1993. pp 30-45.

22) 王肅. 外臺秘要. 북경, 인민위생출판사. p 57.

23) 蔡人식. 傷寒論譯註. 서울, 고문사. p 3, 1984.

24) 신현규. 장중경의 생애와 관련된 諸問題에 대한 고찰.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2, 1992.

25) 蔡人식. 傷寒論譯註. 서울, 고문사. 1984. 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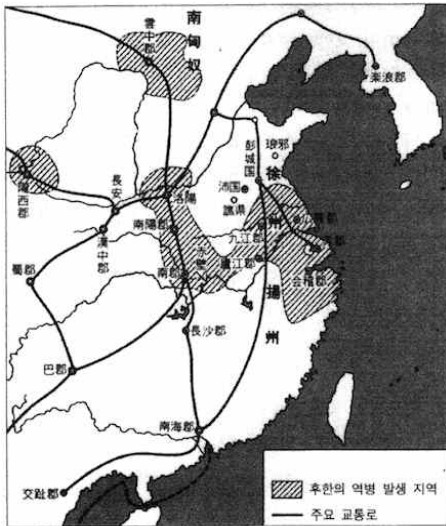


Fig. 1. Areas of an epidemic outbreak at later Han dynasty.

둘째 의학적 배경으로 건안 22년(217)에 발생한 역병의 참상과 이에 대한 민간에서의 해결책에 대해 曹植(192-232)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집집마다 엮어진 시체들이 아픔이 있으며, 방방마다 통곡하는 슬픔으로 가득 찼다. 어떤 경우는 문을 걸어 잠근 채 죽었고, 어떤 경우는 전 가족이 다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을 귀신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여겼다. … 음양이 제자리를 잃고, 寒暑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역병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부적을 붙여서 이 역병을 막으려고 했다.”<sup>33)</sup> 그 당시에는 역병의 원인이 귀신이 아니라 자연의 이상에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부적과 주문으로 병을 치료하고자 하였다. 이는 『傷寒卒病論集』에서 언급한 “降志屈節 欽望巫祝 告窮歸天 束手受敗”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기도·주문·축유 등과 같은 당시 민간에서 성행했던 민간치료법이였다.

셋째 문화사적 배경으로 2세기의 역병 유행은 결코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었으며 유럽에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 현상이었다. 전세계적 유행을 이끌어 낸 조건의 하나는 동서 교통로(즉 silk road)의 개설이었다. 중국-인도 사이의 교통은 선진시대에 이미 개통되었지만 병의 이동을 위한 조건은 아직 갖추지 않았다. 숙주인 사람의 이동 양태가 변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맥닐(William H. McNeil)은 “중국과 인도로부터 구대륙을 횡단하여 지중해 세계로 이르는 교통이 항상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를 타거나 대상을 이루어 먼 길의 왕래를 거듭하자, 구세계 각 문명 사이에 전염병 전파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다. 전염병이 보편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그 경우 최대의 한계를 긋는 가장 좋은 기본적 조건은 날마다 전염병을 발생시키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숙주가 얼마만큼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숙주 수의 문제였다. 이 조건이 대략 충족된 상태가 실제 기원 1세기 중에 나타났다.”라고 하였다<sup>34)</sup>. 따라서 1, 2세기에 집중적으

로 나타난 역병의 유행은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로마, 동쪽은 중국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전세계적인 것으로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민간인의 폐해와 혹독한 현실은 傷寒病(疫病)의 예방·치료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하게 요구되었고, 장중경은 이에 뜻을 세워 傷寒雜病論을 저술하는 배경이 되었다.

## 2. 예시를 통한 病의 전변과 四診의 중요성 언급

序의 머리에서 “予每 … 觀齊侯之色”이라 하여 齊桓侯 일화를 언급<sup>35)</sup>한데는 장중경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漢記·倉公扁鵲列傳經에 보면 扁鵲은 桓侯를 5일 간격으로 보면서 腠理→血脈→腸胃間→骨髓로 병이 전변되고 있음을 경고하였으나 桓侯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腠理에 있을 때는 湯藥·熱藥을, 血脈에 있을 때는 鍼石을, 腸胃에 있을 때는 藥酒를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의학에서 병의 진입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장중경이 難置要略·中風歷節病脈證并治經<sup>6)</sup>에서 “邪가 皮膚에 있으면 血虛해져 絡脈이 비게 되어 賊邪가 나가지 않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邪氣가 도리어 완만해지고 正氣는 급해져서 正氣가 邪를 잡아당겨서 喎僻·不遂가 된다. 邪가 絡에 있으면 肌膚가 不仁한다. 邪가 經에 있으면 무거움을 이길 수 없다. 邪가 腑에 들어가면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 邪가 臟에 들어가면 혀가 움직여 말하기 어렵고 입에서 침을 토한다.”라고 한 것은 편작의 일화를 임상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難問·皮部論經<sup>7)</sup>에 “百病의 始生은 반드시 皮毛에서 먼저한다. 邪가 피모에 中하면 腠理가 열리게 되고, 腠理가 열리면 客이 絡脈에 들어가서 머무르고, 물러나지 않으면 經에 傳하여 들어가고, 머물렀다가 물러나지 않으면 府에 전하여 들어가서 腸胃에 쌓여 저장된다.”라 하였는 바, 편작의 일화나 難置要略經에서의 病證傳變 설명 모두 難經經이론의 범위 안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難經經에서는 病位에 따라 鍼法과 治法이 달라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難經·官鍼經에 “병이 皮膚에 있어 항상된 곳이 없는 자는 病所에 鑱鍼으로 취하되 膚의 흰 부분은 취하지 말고, 병이 分肉사이에 있으면 病所에 員鍼으로 취하고, 병이 經絡에 있어 痲痺한 자는 鋒鍼으로 취하고, 병이 脈에 있어 氣가 적어 마땅히 보해야 하는 자는 井榮이 나누어진 輸에 鍤鍼으로 취한다.”<sup>38)</sup>, 難問·調經論經 “병이 脈에 있으면 血을 조절하고, 血에 있으면 絡을 조절하고, 氣에 있으면 衛를 조절하고, 肉에 있으면 分肉을 조절하

35) 司馬遷 원저, 吳順東, 譚屬春 林平 역, 史記全譯(4), 貴州人民出版社. p 2680, 1994.

36) 광동열 편역, 금궤요략역해, 서울, 정보사, 2002. p 114. “邪在皮膚 浮者 血虛 絡脈空虛 賊邪不瀉 或左或右 邪氣反緩 正氣即急 正氣引邪 喎僻不遂 邪在於絡 肌膚不仁. 邪在於經 即重不勝. 邪入於腑 即不識人. 邪入於臟 舌即難言 口吐涎.”

37) 홍원식편,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p 198, 1985. “是故百病之始生也 必先於皮毛. 邪中之則腠理開 開則入客於絡脈. 留而不去 傳入於經. 留而不去 傳入於府 府於腸胃.”

38) 홍원식편, 정교황제내경소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p 62, 1985. “病在皮膚無常處者 取以鑱鍼於病所 膚白勿取. 病在分肉間 取以員鍼於病所. 病在經絡痲痺者 取以鋒鍼. 病在脈 氣少當補之者 取之鍤鍼於井榮分輸. …”

33) 『曹集詮評·說疫氣』, “疫氣流行 家家有僵尸之痛 室室有號泣之哀 或闔門而殞 或覆族而喪.”

34) 가노우 요시미즈 지음, 동의과학연구소 옮김, 몸으로 본 중국사상, 서울, 소나무, pp 74-76, 1999.



하지만 황노사상과 도가학설은 한의학의 중요한 생리학설인 장부학설, 경락학설이 처음 비롯된 근원이고, 孫思邈, 陶弘景과 같이 의학과 내단수련을 함께 했던 이들이 실제 많았다는 점과 2동의보감經 身形精氣神이라는 기본 구조에서부터 도가적인 관점에서 저술된 점으로 볼 때 한의학이 갖는 도가적 근원과 도가의학의 예방학적 가치가 만들어낸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sup>53)</sup>.

方術은 方書로 대변된다. 序에서 밝힌 바와 같이 2傷寒雜病論經 2素問經 2九卷經 2十一難經 2陰陽大論經 2胎產藥錄經 등 漢代 이전의 의학사상을 총결한 經方을 대표하는 方書다. 同篇에 “上以療君親之疾, 下以救貧賤之厄, 中以保身長全 以養生”이라 한 것은 2인농본초경經에서 “上品 120종은 君으로 養命을 주하고 無毒하여 多服·久服하여도 사람을 傷하지 않으므로 輕身益氣 不老延年을 바라는 데는 이것을 用하고, 中品 120종은 臣으로 養性을 주하며 有毒과 無毒이 있으므로 參작하여 用하고 病을 調하고 虛羸를 補하는 데는 이를 用하고, 下品 125종은 臣으로 治病을 주하며 多毒하므로 久服하여서는 안 된다. 病을 治癒하는데는 이를 쓴다.”<sup>54)</sup>라고 한 것과 같은 인식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2傷寒論經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처방에는 桂枝湯方과 같이 〇〇湯方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方術을 추구하는 장중경의 의도라고 생각된다.

한편 方士는 방술을 닦는 사람, 깨달은 사람<sup>55)</sup>, 신선의 술법을 닦는 사람으로 求仙·煉丹(주문·주술)·祈禱 등 여러 가지 仙術을 행하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 직업은 주나라에서부터 시작되어 秦漢 때에 이르러 점차 번성하였다<sup>56)</sup>. 方士에 대한 언급이 2黃帝內經經 2五臟別論과 2至真要大論에 있는 것으로 보아 方士가 성행하던 漢代 이전 (황제내경이 成書될) 시기에도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결론

「傷寒卒病論集」을 번역하고, 장중경이 언급한 내용들 중 저술 배경, 扁鵲 고사를 통한 病의 傳變과 四診의 중요성, 方術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반적으로 2傷寒卒病論經과 2傷寒雜病論經은 같은 책으로 알고 있으나 같은 醫書가 아니다.

장중경이 2傷寒雜病論經저작은 첫째 시대적으로 하남·안휘·호북·절강 일대에 발생한 疫病, 饑饉과 같은 天災 뿐만 아니라 宦官의 권력화, 官府의 暴政·暴斂으로 인한 농민 봉기, 둘째 의학적으로

기도·주문·축유 등과 같이 巫術을 믿고 따르는 민간치료법 성행 및 민간인의 의료에 대한 無知, 셋째 문명사적 배경으로 동·서양의 교통로(즉, 실크로드)의 개설로 인한 교역증가로 숙주인 사람의 이동이 원인이 되었다.

편작의 고사에 나타난 병의 전변과정 즉, 腠理→血脈→腸胃→骨髓로 이어지는 病의 傳變이 장중경이 주장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2傷寒雜病論經에서는 腠理, 絡, 經에 병이 들었을 때의 病證을 주로 설명하였고, 2經方要略經에서는 腸胃, 五臟에 병이 들었을 때를 주로 언급하였다. 또한 寸尺·手足·人迎趺陽·三部·明堂闕庭 등 인체 모든 부위를 소홀함없이 진찰할 것을 주문했으며, 2傷寒雜病論經 이들 내용을 수록해 놓았다.

2傷寒雜病論經에는 2황제내경經과 2인농본초경經 면면히 흐르는 도가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장중경이 생존한 漢代에는 사회적 으로 儒家 뿐만 아니라 陰陽家思想·黃老思想·神仙術 등이 행해졌다. 서문에 장중경은 ‘方術을 宿尙하였다’라고 하였는 바, 方術이 2傷寒雜病論經과 2經方要略經의 처방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자 처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으나 그 기전과 연유는 밝히지 못하였다.

## References

1. Kim, H.J. The study about mechanism of disease in Shanhanlun pursuant to ‘Fluid and Humor’ and ‘Yang qi’. Thesis of doctor’s degree, Graduate school of Daejeon University. pp 4-6, 2010.
2. Wang, R.A. Yifangjijie. Seoul. Sungbo Publishing Co.. p 1, 1983.
3. Zhang, Z.J. Xinbianzhongjingquanshu. Seoul. Daesungmoonhwa Co. pp 1-29, 30-45, 1993.
4. Wang, S.H. WangShuhe Maijing. Taipei, Wenguang Publishing Limited Co.. p 2, 1980.
5. Huangfu, M. original work, Shanto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trans.. Zhenjiujiayijingxiaoshi(1).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p 14, 1979.
6. Nan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original work, Moon, J.J., et al. Shanghanlunjingjie, Seoul, Haneuimunwha Co. p 9, 2013.
7. Wei, L.T. Shanghanlunbenyi. Beijing, Traditional Chinese Medical Classics Press. pp 10-11, 1997.
8. Nan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ed.. Shanghanlun nyijie. Shanghai, Shanghai Scientific & Technical Publishers. 1997.
9. Yang, P.J., Yang, Y.W., Cao, L.J. Shanghanlun. Beijing, Academy Press. pp 6-7, 2007.
10. Cheng, W.J. Zhujieshanghanlu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p 6, 2013.
11. Chae, I.S. Shanghanlunyiquan. Seoul, Komoon Co.. p 3, 1984.
12. Wang, D. Waitaibiyao.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오니 다 믿지는 말되 참고는 하자”고 하였다. 『의사혹문』에 의하면 “고금의 의사에는 질의, 음양의, 선가의라는 세 부류가 있는데 편작, 중경과 같이 병독을 찾아 적절한 처방으로 병을 없애는 이가 질의, 병을 보지 않고, 음양오행과 상생상극으로 역측하는 이가 음양의, 기와 연단을 복용하는 이는 선가의라 하였다. 이 중에서 질의만이 진정한 의사”라고 하였다.

53) 임명진. 『주역참동계』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28 2010.

54) 李尙仁. 본초학. 서울, 수서원. p 4, 1981.

55) 王冰編.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대성문화사. p 88, 1994. “方士 謂明悟方術之士也”

56)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3.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p 545, 1999.

- House Co.. p 57.
13. Shin, H.G. A study on the Zang Zhung-ghung's life and concerned several matters. Thesis of master's degree, Graduate school of Daejeon University. p 40, 42, 1992.
  14. Kanou, Y. Oriental Medical Science Institute trans.. Chinese Thoughts seen through the Human body. Seoul, Sonamoo. pp 74-75, 102, 1999.
  15. Hong, W.S., Yoon, C.Y. The History of Chinese Medicine. Seoul, Iljoong Co. pp 81, 131-132, 134-135, 2001.
  16. <https://ko.wikipedia.org/wiki/방술>.
  17. Sima, Q. original work, Wu, S.D., Tan, S.C., Lin, P. trans.. Sijiquanshu(4), Guizhou People's Publishing House. pp 2676-2678, 2680, 1994.
  18. Kwak, D.Y. Jinkuiyaolueyijie. Seoul, Sungbo Publishing Co.. pp 30-31, 114, 2002.
  19. Hong, W.S. ed.. Jeonggyohwangjenaegyeong Somun. Seoul, Publisher of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p 62, 198, 219, 301, 304, 1985.
  20. Kim, T.S. ed.. ZhujieHanguelShanghanzabinglun. Seoul, Euisung Co.. pp 29-78, 2013.
  21. Song, J.S. Yixuejiyao. Daejeon, Moonkyung Publishing Co.. p 31, 1992.
  22. Im, M.J. Study on Zhouyicantongqi (Token for Joining the Three in According with the Book of Changes). Graduate school of Daejeon University. p 27, 28, 1992.
  23. Lee, S.I. Hebalogy. Seoul, Sooseo Co.. p 4, 1981.
  24. Compilation Committee at Oriental Medical Encyclopedia. Oriental Medical Encyclopedia(3). p 545, 1999.